

이마트發 코로나 연쇄감염 최악 피할 듯

확진자 총 21명... 방문객 5명 진단검사서 양성 판정 도 “확진 방문객 선행 감염자 미 접촉·동선 안 겹쳐” 이달만 771명 확진... 25일 오후 기준 29명 추가 감염

제주시 대형마트 집단감염 사태가 마트를 찾은 일반 이용객에게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27명(2438~2467번)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이어 2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29명(2495~2523번)이 추가 감염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523명으로 늘었으며 이달 들어서는 771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주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29명으로 여전히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56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34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1명은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방문자이다. 나머지 11명은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11명이 4개 집단감염 사례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명은 '제주시 노래연습장' 확진자, 1명은 '제주시 학원2' 확진자, 2명은 '제주시 종합병원' 확진자, 나머지 2명은 가장 최근 집단감염으로 분류된 제주

시 대형마트 확진자다. 이로써 제주도 대형마트발 확진자는 21명으로 증가했다. 이중 14명이 마트 근무자, 6명이 마트 근무자 가족, 1명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협력업체 직원 접촉자이다.

제주시 대형마트 방문 이력이 있는 일반 고객 중 5명이 확진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집단감염 사례로는 분류하지 않았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마트 방문 이력이 있는 확진자 5명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행 감염자와 접촉했거나 동선이 겹친 적이 없었다”면서 마트 방문으로 인한 확진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하지 않았다.

도 방역당국은 제주도 대형마트 방문 이력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는 인

원이 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5명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일반 손님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지난 22일 제주도 대형마트 동선이 공개된 후 검사를 받으려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난 23일 진단검사량이 9615건으로 치솟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도 방역당국은 제주도 대형마트 방문객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이번 집단감염 사태가 일반 손님에게 대거 전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4일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305곳을 상대로 방역 수칙 점검을 벌여 이중 3인 이상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 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 이삼민기자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 꾸준

7월까지 2625명으로 작년보다 296% 증가

올들어 제주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꾸준히 월평균 300명이 넘는 인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로의 순유입이 제주시보다 더 많았다.

25일 통계청의 7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도내 순이동(전입-전출) 인구는 559명이다. 7187명이 제주로 전입하고, 6628명은 전출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순이동인구는 2625명으로 한달 평균 375명꼴로 순

유입됐다. 작년 같은기간 순이동인구가 663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95.9% 증가한 규모다. 올해 7개월 동안 순이동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달은 1월(-57명) 뿐이다. 2월 502명, 3월 250명, 4월 536명, 5월 428명, 6월 407명이 순유입됐다.

지역별 순이동인구는 제주시 1172명, 서귀포시 1453명으로 서귀포시 지역으로 유입된 인구가 더 많았다. 문미숙기자 ms@halla.com

주민들 통행 막은 60대 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철제 차단봉으로 주민들의 통행을 막아버린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일반교통 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건물 신축 공사 당시 주민들이 이용하던 도로에 철제 차단봉을 설치해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건물 신축 당시 공사업자가 토지 경계에 설치된 돌담을 허물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점을 일시적으로 묵인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육로’는 일반적으로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로서 부지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달리 판단했다.

이어 “신축공사 이전부터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했다”며 “완공 이후 도로 모양이 형성된 점, 주민들에게 가스 배달 등이 가능했던 사실 등에 비춰 육로에 해당된다”고 벌금형 사유를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6510@halla.com



줄어 준비하는 부두 25일 제주도 한림항 어선부두에서 어민들이 그물을 정비하는 등 출어 준비를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방역수칙 위반에 폭행 연루 경찰간부 경징계 견책 처벌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단회식을 한 뒤 음주 폭행사건에도 연루된 제주경찰 간부가 경징계를 받았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한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견책 처분은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성돼 있다.

A경정이 견책 처분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6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 등이 제한된다. 처분 사유는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이다.

이와 함께 A경정과 회식에 참여했던 직원 5명 모두 단순 경고 처분을 받았다.

A경정은 지난 2월 23일 제주도에 5인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시내 한 식당에서 직원 5명과 함께 회식을 가지며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또 A경정은 이후 방문한 다른 식당에서 열 테이블에 있던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어 뽀빠움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B씨가 A경정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식 입건되지는 않았다. 강민성기자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제주 3대 장기미제 사건으로, 제주도 회를 떠돌이처럼 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엄벌 및 신상공개를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접수됐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모(55)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25일 오후 6시 37분 기준 27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1999년 11월 5일 새벽 이변호사 피살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은 증거가 나오지 않아 전단 1만여장을 배포하고 현상금 1000만원까지 내는 등 강한 수사지시를 보였지만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게시했다.

그러면서 “재수사에 돌입한 경찰지에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모(55)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25일 오후 6시 37분 기준 27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1999년 11월 5일 새벽 이변호사 피살사건이 발생했다”며

길 걷는 여성 3명 몰래 ‘찰칵’ 중국인 입건

경찰, 휴대전화 분석 나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50분쯤 제주도 화북동 한 인도를 걷던 여성 3명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인근 마트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며 정확한 사진 경위와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지하 난타연습실 화재

도내 한 난타 연습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 사진

25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23분쯤 제주도 용담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난타 연습실에서 연기가 발생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34명의 소방관과 12대의 장비를 동원해 신고접수 약 20분 뒤인 오후 7시43분쯤 화재를 완전 진압했다. 이 화재로 인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연습실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추산 약 1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강민성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묘목

유라조생	4년생
황금향	5년생
감평(레드향)	3,4년생
한라봉	4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생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혜향	1년생
감평(레드향)	1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3690-2453

감골 신품종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온(레몬), 한라봉, 탐나는종, 사라향(신품종전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애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아라베니(궁천번이치),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명자묘목(1000번 이상)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골(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천혜향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골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격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굴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